

"한-일 두 나라의 성신지교誠信之交"

허 문 명 許文明
동아일보 논설위원



2주전 일본 쓰시마 섬, 대마도에 다녀왔다. 위(上島) 아래(下島)로 말 두 마리가 마주 보는 형상이라 해서 대마도 對馬島라 불리는 쓰시마 섬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다.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九州)와 한반도 사이에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있어 예로부터 대륙과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으로 흘러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학문과 예술, 종교가 전해졌으니 한류가 최초로 전해진 일본 땅이라고 할까.

부산항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49.5Km이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본토 후쿠오카와의 거리가 132km이니 대마도는 일본보다는 우리와 가깝다. 하대마下對馬라 불리는 이즈하라 항까지는 2시간정도, 상대마上對馬인 히타가츠 항까지는 1시간 10분가량 걸린다.

이렇게 가까우니 부산사람들은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도 있다. 실제로 섬에 가보니 동창회, 계모임, 산악회 등 중장년층들을 실은 관광버스가 관광지마다 네 다섯 대씩 줄을 이루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오히려 현지인들은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한국인들 모습만 보여 일본어 간판이 없다면 한국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관광가이드는 산천이 아름다운 대마도를 '힐링의 섬'이라고 했다. 깨끗한 공기와 선선한 바람, 푸른 바다와 숲은 그런 말을 들을 만 했다. 제주도 면적의 40%가량이라고

하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도 좋을만한 크기였다.

하지만 대마도는 자연환경보다 한국과의 긴밀한 역사적 인연이 가득한 곳이다. 섬은 현재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 200년간 일본의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조선 왕조 간의 뜨거웠던 외교 현장이기도 했다. 그 출발이 바로 조선통신사였다.

선린의 뱃길을 연 '조선국통신사의 비'

쓰시마 섬 하도의 중심지 이즈하라(嚴原) 항 가와바타 거리 인근에는 한국과의 인연을 말해주는 상징물들로 가득했다. 조선통신사 기념비를 비롯해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1912-1989)의 결혼봉축기념비, 독립운동가 최익현(1833-1906)의 순국비도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쓰시마 역사 민속 자료관'이다. 자료관 입구 옆에는 쓰시마가 선린의 뱃길을 연 '통신사의 섬'임을 알려주는 '조선국통신사의 비'朝鮮國通信使之碑가 서 있다. 자료관은 통신사 행렬도, 고려 판 대반야경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행렬도는 16.58m의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으로 당시 행렬규모가 얼마나 장대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한국 관련 유물은 거의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쓰시마에서 한국인에 의한 불상 도난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 유물 도난 우려가 커졌다고 한다.

자료관 뒤편에 조성된 가네이시조(金石城) 공원은 조선 통신사가 12차례나 일본을 방문하는 데 있어 총연출자나

다름없었던 쓰시마 번주의 궁궐과 통신사 일행을 맞은 영빈관이 있던 자리다. 영빈관은 역관과 상인들의 교역장소로도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즈하라 시청이 1990년대 이곳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 땅에서 조선과 고려의 도자기와 기와 등이 다수 출토되면서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과의 무역이 곧 '생명줄'이었던 쓰시마는 조선에서 인삼과 생사生絲를 사들여 일본 본토에 팔아 40배의 이윤을 챙겼다.

쓰시마 섬은 본래 세습 영주가 통치하던 *번藩이었다. 1591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 출병을 선언하자 쓰시마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쓰시마 번주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끝고 간 쓰시마인은 무려 60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섬 안에 있던 16~55세의 모든 남자가 전쟁에 동원돼 남자들이 대다수 희생된 데다 조선과의 교역이 끊기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조선과의 교역으로 먹고 살았던 쓰시마 섬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선과의 무역을 재개해야만 했다. 이들에게 조선과의 외교관계 회복은 필사적인 것이었다.

사명당 유정이 탐적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

번주(藩主)였던 소 요시토시(宗義智)는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조선에 사자使者를 보내 전쟁 기간 동안 끊어졌던 조선과 다시 교류하고 싶다고 애원한다.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이어 막부의 실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까지 화해 교섭을 지시한다. 번주는 더욱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나라가 거의 거덜나다시피 한 조선은 초반에는 일본에서 온 사신들을 모두 죽여 버릴 정도로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실했다. 전쟁 때 도요토미 군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조선 침탈에 적극적이었던 쓰시마 번주에 대한 원한과 분노도 깊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기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쟁 중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을 데려오는 일이 급했다.

1604년 사명당 유정(1544~1610)이 탐적사探賊使로 쓰시마 섬에 간다. 적의 동태를 탐사하는 사절이란 의미이니 아직도 조선 내에 뿌리 깊었던 대마도 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명당을 만난 쓰시마 번주는 “제발 교토京都



쓰시마 이즈하라시에 있는 '조선국통신사의 비'. 쓰시마,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등 일본 서부지역에는 아직도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당시 일본의 수도)까지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달라”고 애걸한다. 결국 사명당은 도쿠가와까지 만나고 조선인 1000여명을 조선으로 데리고 온다.

두 나라의 국서國書까지 위조하여 화해 도모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번주 차원이 아니라 도쿠가와가 직접 임진왜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사죄하고 사절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國書を 보내라는 것이었다.

쓰시마 번주로서는 난처한 주문이었다. 도쿠가와와 “조선을 침략한 사람은 도요토미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서를 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도쿠가와와 사명당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조선 출병에 관계하지 않았다. 조선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원한도 없다”고 말했다. 중간에서 찢절매던 쓰시마 번

주는 목숨까지 위협한 ‘엄청난 사기’를 궁리해내는데 다른 아난 도쿠가와와 국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자료관 안쪽에 들어서면 유리 액자에 보관된 역사적인 문서가 있는데 바로 쓰시마 번주가 위조한 국서였다.

쓰시마 번주는 침략 전쟁에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아 도쿠가와와 옥새 서체 연호까지 위조해 조선에 전달한다. 조선 왕조도 처음엔 의심하지만 결국 문제 삼지 않고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다. 쓰시마 번주는 이번엔 일본의 위조국서를 전달받은 선조가 1607년 사절단 편에 보낸 답장을 다시 위조해 도쿠가와에게 보낸다.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선조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조로부터 받은 답장을 그대로 도쿠가와에게 전할 경우 자신들이 가짜 국서를 선조에게 보냈다는 것이 들통 나 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시마 번주는 선조의 답장 중 일부 문구를 바꾼 위조문서를 만들어 도쿠가와에게 전한다. 선조가 보낸 원래 편지 내용은 이랬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선왕의 능묘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한 하늘 아래서 살지 못할 정도지만, 귀국貴國이 위문편지를 보내어 잘못을 고쳤다고 하니 이렇게 후의에 답한다.’

쓰시마 번주는 이 내용 중 ‘귀국이 위문편지를 보내어 잘못을 고쳤다고 하니 이렇게 후의에 답한다’는 부분을 아예 지워 버리고 ‘조선이 먼저 일본에 화교를 요청한다’고 거짓 내용을 썼다. 또 편지 머리글에 있던 ‘봉복奉福’(답신)이란 표현도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가 쓰는 ‘봉서奉書’로 바꾸는 등 무려 24자나 고쳤다.

하지만 이 위조 사건은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나 쓰시마 번을 배신한 증신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당시 2대 쓰시마 번주는 선대가 저지른 일에 추궁을 당하고 멸문 위기에까지 빠지지만 도쿠가와와 손자였던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인 증신을 유배시켜 버린다. 쓰시마 번이 중개하는 조선과의 교류도 그대로 이어져 통신사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선 조선과의 수교 필요성이 절실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시작된 조선통신사의 일본 내 여정을 책임진 ‘총 연출자’이자 ‘외교 창구’였던 쓰시마 번주를 처벌할 경우 일본 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란 생각도 강했다.

‘서로 신의信義로써 교류한다’는 의미인

‘통신사通信使’라는 명칭

조선은 (위조) 국서 교환 후 선조 40년(1607년) *회답 겸 쇄환사 回答 兼 刷還使라는 이름으로 467명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실상 첫 통신사 파견이었다. 1차 사절단 명칭에 들어간 ‘쇄환刷還’은 포로를 데려오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이다. ‘서로 신의信義로써 교류한다’는 의미인 ‘통신사通信使’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쓰인 것은 4차인 1636년부터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200여 년간 12회에 걸쳐 파견한 사절단이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3회, 도요토미가 집권했을 때 2회 파견됐다. 보통 도쿠가와 막부 시기 이전을 ‘통신사’, 그 후를 ‘조선통신사’라고 구분해 부른다.

통신사 일행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使官 등 관리를 비롯해 학자, 문인, 화가 등 300~500명으로 구성된 정치·문화사절단이었다. 한양을 출발한 일행은 부산을 거쳐 쓰시마 섬에 상륙한 뒤, 다시 수로와 육로를 이용해 에도江(현재 도쿄)까지 이동했다. 이들이 왕복한 거리는 4000km가 넘었으며 보통 6개월~1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조선통신사는 쓰시마에 특권과

막부의 인정을 안겨주는 ‘황금알’

통신사를 접대하는 쓰시마 섬의 노력은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었다. 3년이나 사전 작업에 매달려 초청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행차 길을 정비하고 접대와 호위, 숙소 대책까지 모두 번주가 맡았다.

통신사가 도착하면 번주는 집꾼과 호위 인력을 붙여 에도까지 안내했다. 당시 조선인 일행은 500명을 넘지 않았는데 이들까지 합치면 총 2000명이 넘는 행렬이 구성됐다고 한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컸다. 행차를 무사히 치러냄으로써 쇼군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은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컸던 보상은 조선과의 무역 독점권이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쇄국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쓰시마 섬만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 일본 곳곳에 물건을 팔아넘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조선통신사는 쓰시마 섬에 일종의 '종합무역상사' 같은 특권과 막부의 인정을 안겨주는 '황금알'이었던 셈이다.

이즈하라 시내에는 풍량으로 표류한 조선인 어부가 머물렀던 집단수용소 표민옥적瓢民屋跡이 바라보이는 아담한 포구가 있다. 이 포구에 배를 정박하고 직선 방향으로 언덕배기를 타고 올라가면 고풍스러운 모습의 사찰인 세이잔지(西山寺)가 눈에 들어온다. 돌과 자갈로 험준한 산과 세상의 물결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일본식 정원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오래된 절이다. 쓰시마 시청 옆 언덕배기에 있는 이 사찰은 통신사 접대를 도맡아 하던 본부 격이었다. 절은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묵은 이후 여러 사절단이 숙소로 이용했다. 당시 통신사 숙소는 대체로 그 지역의 유명한 절이었다.

'한 집에 의관 갖춘 두 나라 신하,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묻지 마시오'

정원 잔디밭에는 김성일의 시비가 서 있었는데 한일 양국 국민의 영원한 선린우호에 기여하고 김성일의 시문을 기억하기 위해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집에 의관 갖춘 두 나라 신하/ 지역은 달라도 식과 의리는 균등하도다/ 정성을 다해 접대하므로 긴장이 풀리고 환대에 족하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묻지 마시오'

김성일이 승려 게이테쓰 겐소에게 지어준 이 시는 국경

을 초월한 한국과 일본의 우정이 절절해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절은 사명당 스님이 3개월간 머물기도 했었다. 쓰시마 섬과 조선통신사 간 특별한 인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즈하라는 조선통신사와 연고가 있는 일본 내 60여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1980년) 통신사 행렬을 재현했다.

세이잔지 바로 아래에 큰 주택이 보이는 데 이곳 역시 조선과의 외교에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쓰시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가 1727년 세운 조선어학교 한어사韓語司의 건물이다. 이 대목에서 아메노모리 호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메노모리는 아베 신조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성신 지교誠信之交'를 강조하며 거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조선통신사들이 오가던 에도 시대 외교관이자 유학자로 일본의 선각자로 불린다.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말 교본을 만들고 통신사들과 깊게 교류했으며 '우삼동雨森東'이라는 조선 이름을 가질 정도로 조선을 사랑했다.

2015년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인이 태어난 아메노모리(雨森) 마을을 탐방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琵琶)호 북동쪽 연안에 있는 시가(滋賀) 현 나가하마(長濱) 시 다카쓰키(高月) 정에 속해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고인의 생가를 기념관으로 조성해 지금까지도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한일 '성신 교류'를 아직도 잊고 있다.

취재팀이 찾아갔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시골이었다. 역 휴게실에 '朝鮮通信使(조선통신사)'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어 가까이 가 보니 시市예술문화회관에서 '아메노모리 호슈와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안내문이었다. 그만큼 조선통신사는 아직도 이곳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다.

역에서 기념관까지는 차로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최대한 생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듯 전형적인 일본 가정집처럼

생긴 기념관 앞에 도착하니 ‘동아시아 교류하우스 아메노모리 호슈 암庵’이라는 일본어 간판과 ‘어서 오세요’라는 한글 간판이 서 있었다.

‘ㄱ(기역)’자 구조로 된 건물 안은 고인의 책, 글씨 등을 전시하는 공간과 교육 공간으로 쓰는 널찍한 다다미방으로 구성돼 있었다. 집 안 가운데에는 자갈이 깔려 있는 넓은 마당에 아름다운 정원도 있었다. 히라이 시게히코(平井茂彦) 관장은 “일본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나 역시 그때서야 비로소 고인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인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새삼 자부심이 느껴졌고 고인이 평생 추구했던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훌륭한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한일 교류로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500여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해 800만 엔(약 8000만 원)을 모아 1984년 기념관을 열게 됐다.” 주민들의 열성에 공감한 시가 현도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1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니 스피커에서 고인의 일생과 기념관이 조성된 경위를 소개하는 내용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흘러나왔다. 정면에는 고인의 모습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좌상坐像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고인의 유품과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한국어와 시문에 능통한 아메노모리

한일간 외교와 무역에 중심 역할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통신사 인형과 그림들도 있었다. 이곳에만 오면 통신사에 대한 웬만한 지식은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다미방에는 3개 벽면에 걸쳐 조선통신사 행렬도가 길게 붙어 있었는데 맨 앞에서 아메노모리가 말을 타고 인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아메노모리는 1668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교토로 나와 의학을 배웠다. 본래 지역 영주 집안이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일파에 의해 화를 입어 몰락했다고 한다. 14세였던 1682년 교토에 7차 통신사가 왔을 때 환영 인파로 들쭉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더 놀란 것은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이 통신사들에



쓰시마 이즈하라초 향토자료관 앞에 있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조선이름 우삼동雨森東)의 현창비顯彰碑에 새긴 誠信之交隣(성신지교린). 이 글은 쓰시마의 유학자 아메노보리가 조선방좌역을 맡아 두 나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줄곧 신념으로 삼은 글로 성신(誠信)이라는 것은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심眞心으로 교류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게 시문詩文을 보이고는 칭찬을 받더니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다.

이후 진로를 바꿔 당대 최고 성리학자였던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문하로 들어간다. 기노시타 문하에서 뛰어난 제자로 꼽혔던 그는 스승의 추천으로 1689년 쓰시마 번 관리로 근무하게 된다.

9년 뒤인 1698년 조선방좌역朝鮮方佐役(현 차관급)에 임명돼 본격적으로 대對조선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1702년 처음 부산 땅을 밟아 3년 동안 일본인 특별거주지이자 일본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고 재우는 시설이 있던 부산 왜관에서 일한다. 그러면서 조선말 배우기에 몰두한다. 당시 조선 통역관들을 위해 일본어 사전인 ‘왜어류해倭語

類解' 편집을 돕던 아메노모리는 일본 통역관들을 위해 '교린수지交隣須知'라는 조선말 교본을 쓰기에 이른다. 일본 최초의 조선어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책에는 경상도 사투리도 상당수 있어 아메노모리가 사투리까지 구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책은 메이지 초기까지 널리 읽혀 일본 내 조선말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아메노모리는 접대와 문서를 관리하는 진문역眞文役 자격으로 통신사 행렬을 1711년과 1719년 두 차례 에도까지 안내한다. 1719년 사행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았던 신유한申維翰은 사행록 '해유록海遊錄'에서 "한어漢語에 능통하고 시문에 밝은 일본에서 제일가는 학자"라고 그를 평했다.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아메노모리의 '성신誠信' 정신은 1728년에 쓴 대對조선외교 지침서 '*교린제성交隣提醒'에 집약되어 있다. 책에서 그는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고 일본 문화로 사고하게 되면 편견과 독단이 생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세운 '지켜야 할 54가지 항목' 중 마지막 항목에서 '성신'을 내세우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고인은 또 책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명분 없는 살상극'이라 했으며 조선인 귀와 코를 베어와 묻은 귀 무덤을 두고 '일본의 불학무식不學無識을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했다.

1755년 쓰시마 섬에서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고인은 현재 쓰시마 섬 이즈하라에 부인, 아들과 함께 나란히 묻혀 있다.

아메노모리 마을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지난 3년간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인의 뜻을 잇는 진실한 우정을 한국과 나누고 있었다. 특히 무려 20년이나 넘

게 미래 세대에게 교류 정신을 새기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아메노모리는 조선인 통역관 현덕윤玄德潤과도 각별했다. 1711년 일본에서 아메노모리와 만난 현덕윤은 16년 뒤인 1727년 부산에서 그와 재회한 뒤 사재를 들여 오래된 관청을 고치면서 건물 이름을 '성신당'이라고 지었을 정도다. 아메노모리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성신당기誠信堂記'를 저술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

교린의 길은 성신에 있고, 그 순간 그 장소에 한정된 성의는 어린아이도 움직일 수 없다.'

'교린의 길은 성신에 있고 지금부터 훗날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한 성의의 마음은 돼지나 물고기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지만, 그 순간 그 장소에 한정된 성의는 어린아이도 움직일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제는 강경파의 목소리보다 아메노모리처럼 상대국을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성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닐까. 盧廷

(이 글은 2015년 필자가 취재팀장이 되어 동아일보에 연재한 조선통신사 시리즈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회담 겸 쇄환사 回答 兼 刷還使 : 조선 후기 조선이 일본에서 보낸 국서에 회답 국서를 전하고 피로인被虜人을 쇄환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파견한 사절.

*교린제성交隣提醒 : 『교린제성』은 아메노모리 호슈가 1728년(영조 40) 40여 년간 대조선 외교의 경험을 토대로 편찬한 외교 지침서

필자 약력

동아일보 논설위원(현), 오피니언 팀장, 국제부장
연재 '수교 50년, 교류 2,000년-한일, 새로운 이웃을 향해' 저서 '한국의 일본, 일본의 한국' 등